

외환보유액 충분인가

당국 일단 환율 시장 개입 '실탄' 갈수록 줄어

글로벌 신용경색 대비 적정 보유액 논란 확산

외환보유액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과연 당국이 위기에 실제로 투입할 '실탄'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외환보유액 갈수록 줄어 =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장에서 보유 달러로 원화를 사들이는 시장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달러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스와프시장 개입을 통해 달러를 공급하고 있는 것도 외환보유액 감소의 요인에 해당된다.

문제는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당정협의회에서 "앞으로 외환시장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자금

을 투입해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가용 외환보유액 170억불? 800억불? = 정부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외환은 많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유동외채를 기준으로 하면 가용 외환이 거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유동외채는 단기외채에다 1년 이내 만기가 오는 장기외채를 더한 것으로 외환보유액이 유동외채에 비해 적어지면 심리적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6월말 현재 유동외채는 2천223억 달러로 9월말 외환보유액과의 차이가 17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전체 외채 중 상당부분이 있는 규모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본점



차입, 한해지용 선물환 등을 제외한 약 1천600억 달러로 현재 외환보유액을 기준으로 약 800억달러가 가용외환"이라고 추정했다.

◇ 외환보유액 사용 논란 = 글로벌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6위로 저지 않은 수준이고 9월중 감소액도 주요 외환보유국들에 비해 작지만 올해 들어 6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걱정스럽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올해 외국인 보유 토지

광주·전남 3천600만㎡

올 들어 외국인들은 수도권 외곽을 대거 사들인 반면 광주·전남 등 지방에 대한 투자 증가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3천583만㎡에 달한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3천573만㎡)에 비해 0.3%(10만㎡)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2.1%)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외국인들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토지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 증가분 중 44.2%가 경기도에 몰린 가운데 인천(16.3%), 서울(12.4%) 등 수도권에 72.9%가 집중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한조선 3호 벌크선 17만500t급 진수



대한조선 해남조선소에서 세번째로 건조된 선박 HN-1017호가 2일 진수식에 이어 1도크를 빠져나오고 있다. 국내 선사인 창명해운이 발주한 이 선박은 17만500t급 벌크선으로, 두달여 동안 마무리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중순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한조선 제공>

완도·장흥수협 자본 잠식

외환위기를 거치며 경영부실로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일선 수협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수협의 '2007년 자기자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국 94개 지역·업종수협 가운데 32곳의 출자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금이 출자금을 밑도는 '부분 자본잠식' 조합도 17개나 됐다.

특히 완도군 수협은 자본이 마이너스 1천억원에 달했고 ▲장흥군(-171

억원) ▲근해안강망(-760억원) ▲부산시(-376억원) 등의 상황도 나빠졌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도 완도군 수협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으로 계약을 넘기는 '계약이전'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수협측은 "대다수 조합들이 경영개선 추세에 있다"면서 "2003년 수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47개 조합 가운데 현재까지 10개 조합이 경영정상화를 했고, 나머지 가운데 13개 조합은 당 기준이외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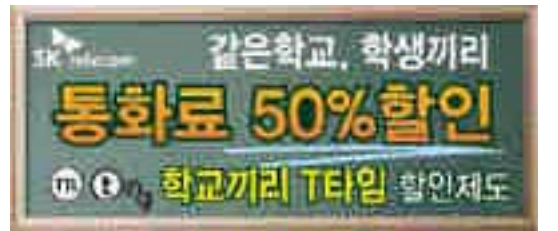
내년 농산물 전문 대형 유통회사 등장

농식품부, 10개 시·군 유통회사 설립 66억 예산 반영

내년이면 미국의 '돌(Dole)'과 같은 대형 전문 농산물 유통회사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한다. 농식품부는 2일 10개 시·군 유통회사 설립에 필요한 66억원을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군 단위 유통회사는 시·군 등 지자체와 농어업인·농수협·

기업 등의 출자로 설립되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법인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품목 5~7개를 집중적으로 수집, 취급하게 된다. /연합뉴스



추경 4조9천억 연말까지 집행

추경예산안 4조9천억원이 연말까지 3개월에 나눠 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총 4조9천억원 중 10월 3조4천억원, 11월 1조1천억원, 12월 4천억원을 각각 집행하기로 하고 매달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체 재정집행 상황

에 대한 점검한 결과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등을 포함한 재정집행 실적은 8월말 현재 140조3천억원으로 계획(145조3천억원) 대비 96.4%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률은 용지보상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지연 등으로 인해 계획에 미달한 96.1%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엄마와 딸의 즐거운 동행

POWER SALE

2008. 10/3(금)~10/12(일), 10일간

엄마와 딸이 함께 즐기는 가을 파워세일 - 현대백화점에서 가을 트렌드를 안겨주세요!

현대백화점 HYUNDAI

Noble & Luxury

08년 F/W 최신 명품 슈즈와 백을 드립니다

기간: 2008. 10/3(금) ~ 10/12(일), 10일간

응모대상: 2층 구름다리

응모대상: 기간 중 방문 고객

참여인원: 총 30명

PRADA: 11호트 Bag (7명), 부키나 Street (2명)

Salvatore Ferragamo: 11호트 Bag (2명), 부키나 Street (2명)

Dior: 11호트 Bag (2명), 부키나 Street (2명)

경품 수령은 전원 기준, 만 20세 이상 공모 가능하며 재세공과금(22%)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당첨자는 개별 연락 및 현대백화점 홈페이지(www.hyundai.com)에서 안내합니다.

구두는 상황에 따라 브랜드 상관없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10월 POWER SALE 영수증 경품 대전치

기간: 2008. 10/3(금) ~ 10/12(일) Hmall 영수증만 10만원까지

응모대상: 기간 중 구매고객

중요정보: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접속(www.hyundai.com) - 경품응모 안내 페이지 클릭

→ Hmall(www.hmall.com)로 이동 → 경품응모권 클릭/로그인(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경품 응모/영수증 유효번호 입력

현대백화점 상품권 500만원 (1명)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2명)

Hmall 상품권 5만원 (200명)

Hmall 상품권 1만원 (1,000명)

현대백화점 및 수영장, 스키장, 호텔, 공연장 등 일부 명품 브랜드에서 제외됩니다.

경품 수령은 전원 기준이며 재세공과금(22%)은 본인 부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문의전화: 600-0000